

익산시 민선 6기 공약사업 이행 '순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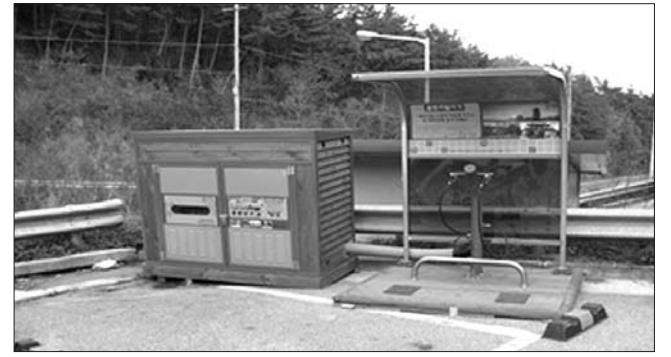
18건 완료·29건 추진 중
문제점·대책·계획 등 논의

익산시는 24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 등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전통과 미래를 이끄는 3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북부권역 농업행정수도 건설 △신진 주민자치제도 시행으로 시민권 강화 △향토산업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7개 분야 50개 세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주요 완료 사업으로는 북부지역 농업행정수도 건설, 작은 미술관 설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18건이 공약이행이 완료되거나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고,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뉴딜일자리사업,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승강장 현대화 등 29건은 계획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공약이었던 북부지역 농업행정수도 건설은 북부권 활성화 및 익산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뉴딜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진사업 해소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공약이행을 제고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가 재임 2년차로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조기에 공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함라산에 흙먼지떨이기 설치

익산시는 함라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함라산 울재 등산로 주차장에 흙먼지떨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흙먼지떨기기는 공기분사를 이용해 옷과 등산화 등에 묻은 흙먼지 및 벌레 등을 털어내는 기구로 등산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했다. 함라산은 익산시 함라면, 옹포면, 성당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 산책과 운동 등을 즐기며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나들이하는 대표적인 주민휴식 공간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산단, 오늘 광견병 예방접종

군산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에서 사육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해 25일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수의사가 직접 산업단지까지 출장하여 무료로 실시하는 것으로 군산산업단지 지역에서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서 1차로 파악한 접종 개체수는 30마리 정도이지만 실제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개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전수조사와 함께 하반기에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산업 경기 불황 등으로 공장의 휴·폐업 기업체가 발생하면서 버려지거나 방치된 유기견이 종종 목격되어 지난해 8월 군산시 기업지원센터와 인근 지구대, 119안전센터 합동으로 유기견 4마리를 생포한 바 있다. /군산=정현 기자

군산시 수송동, 무인민원발급기 주민편의 효과 '톡톡'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수송동에 따르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2015년에는 4만2223건, 2016년에는 3만8342건의 민원서류가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등 총 8만1565건을 발급했으며, 이는 군산시 전체 무인발급기에서 2년간 발급한 24만508건의 34%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인발급기 수수료도 2015년 1300여만원, 2016년 1200여만원으로 2년간 총 2500여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79종이며,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가능하다. 수송동은 시 중심지역으로 무인발급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의 24시간 발급과 대기시간 최소화로 만족도가 높다. 한편 통은 수시로 안내 도우미를 배치,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 책임자를 지정, 월 1회 이상 보안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유지보수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용증대에 힘쓰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군산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군산시지원센터와 손을 잡고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군산시청을 비롯하여 관내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위치, 규모 등 설치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한 기존의 주차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 말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홍보 및 안내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산=정현 기자

'우체통 거리' 특유의 콘텐츠 만든다

군산시-전북지방우정청, 문화 관광홍보 콘텐츠 마련 협약

군산 중앙로 일원에 전국 최초로 조성된 '우체통 거리'를 활용한 문화 관광홍보 콘텐츠 마련을 위해 지난 24일 군산시와 전북지방우정청 등 두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 '우체통 거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줘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같이 했다.

우체통 거리는 2016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주민공동사업에서 우체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도란도란공동체'가 참여하면서 원도심 중앙로 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폐 우체통을 손질하고 그림을 그려 상가 앞에 설치한 기발하고 예쁜 우체통 거리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에서 일부 재료비용 부담하고 작가 재능기부로 우체통 거리 내에 설치된 집배원 조형물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태문 도시재생과장은 "특색 있는 문화·관광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수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우체통 거리와 집배원 조형물을 세워준 문동신 시장에게 감사의 의미로 시장의 사진이 들어간 '나만의 우표'를 협약식에서 선물하고 우체통 테마거리를 만든 주민 공동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전북에서 '살기좋은 곳' 선정

ETNEWS '지속가능성 평가'

익산시가 일일평균 45만명이 접속하고 1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열람하는 대한민국 IT포털의 중심 ETNEWS(www.etnews.com)의 보도를 인용해 전북도에서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ETNEWS의 지난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CSR연구소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현대리서치와 공동으로 진행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익산시가 전북도 내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군과 함께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CSR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가

운에서 전라북도 내 기초지자체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CSR연구소는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평가인 경제·환경·사회·재정, 거버넌스 등 5개의 분야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으로 각 부문당 배점은 경제 150점, 사회 330점, 환경 150점, 재정 250점, 거버넌스 120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익산시는 기초지자체 지속지수에서 각각 500점 대에 여유 있게 안착,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서 'A+'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환경부문에서 114.83점을 받아 도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어 경제 부문에서 81.43점을 기록하는 등 여타 부문에서 평균에 근접하는 점수를 받아 전체적으로 'A+' 등급을 기록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차 신청

익산시, 7월 31일까지 접수

익산시는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의 에너지 효율시공 또는 고효율 보일러(가스, 기름보일러) 지원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주거형태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받는 자가 가구는 제외되며, 가구별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은 평균 150만원 수준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이다. 익산시 올해 지원규모는 215세대로 시는 지난 3월말까지 47세대의 신청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에 추천했다. 희망세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